

신세미의 **미술산책** 

## 40년만에 단색화 열풍

■ 요즘 미술가에선 어디서나 '단색화'다.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울 들어 기획전 및 아트페어, 경매 등 미술시장이 온통 단색화다. 단색화는 그리지 않은 듯 그린, 단색 위주의 추상회화다. 1970년대 서구 미니멀아트 및 일본 모노하(物派), 이탈리아 아르테포베라 등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단색화가 40여 년 만에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브랜드로 떠올랐다.

갤러리현대는 창립 45주년 기념전 '한국추상화전' (22일까지)을 통해 신관(사진)을 단색화 작품들로 꾸몄다. 해외경매회사 소더비도 지난달 홍콩서 기획전 '아방가르드-한국 거장의 선들'을 통해 한국 단색화를 세계컬렉터에게 선보였다. 격년제 현대미술축제인 베니스비엔날레 기간 중 단색화전이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5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열린다. 국제갤러리가 후원하는 베니스의 단색화전에는 김환기·박서보·이우환·정상화·정창섭·하종현 등 6명이 출품한다. 단색화 대표작가의 개인전도 잇따른다.

단색화의 영어표기는 'Dansaekhwa'다. 미술기획자 윤진섭 씨가 기존의 '한국 모노크롬회화(Korean Monochrome Paint



## 기획전·아트페어·해외경매서 한국 현대미술 대표 브랜드로

ing)' 대신 한글명칭을 처음 명기한 것이 2000년 광주시립미술관의 '한일현대미술의 단면전' 전시 도록이었다. 광주비엔날레 기간 중 1970년 전후의 미술운동인 한국 단색화와 일본 모노하를 한데 모으면서 서문에 단색화의 영어명을 'Dansaekhwa'로 기록했다. 2012년 3월 국립현대미술관 '한국의 단색화전'은 저평가돼온 '단색화'의 재발견을 일깨운 기획전이었다. 윤 씨는 "단색화는 한국의 혼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내는, 일종의 초혼(招魂)"이라며 한국화의 요체로 '정신성 촉각성 행위성'을 지목했다.

1970년대 단색화 작가들은 색 자체보다 색을 중첩시키거나 물감을 칠한 뒤 뜯어내는 반복적 행위와 특유의 질감을 추구했다. 단색화의 주목할 만한 첫 해외전시는 1975년 일본 도쿄(東京) 갤러리에서 열린 '한국 5인의 작가, 다섯가지 흰색' 전이다. 당시 권영우·박서보·서승원·이동엽·허황 등의 출품작처럼, 초창기 백색과 작가들이 단색화운동을 선도했으며, 백색 외에 흑적 청 황 녹의 오방색과 다갈색으로 확장됐다.

이 같은 단색화 열풍의 리더는 뜻밖에 갤러리다. 국제갤러리의 이현숙 대표는 2012년 스위스 바젤아트페어, 영국 런던 프리즈 등 유명아트페어에 단색화를 집중적으로 선보였고, 오는 5월 베니스의 단색화전도 진행한다. 설치미술 뉴미디어 위주의 국제미술계에 추상회화로의 복귀가 두드러지는 가운데, 눈 밝고 정보력 뛰어난 화상이 단색화의 재발견을 과감하게 선도했고 그 시도는 평단과 더불어 미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.

미술저널리스트

